

“지성 보자”... 잠 못 드는 밤

대망의 챔스리그 결승... 내일 오전 3시45분

맨 유



첼 시



첼시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20일(한국시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어제 모스크바 입성 엠티론 박지성 선발 예상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마침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AFP통신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맨유와 첼시 선수들을 실은 특별기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브누코보공항에 내렸다고 전했다.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맨유와 첼시는 22일 오전 3시45분 모스크바 루즈니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단판 승부로 유럽 클럽 최강



맨유 두 기동 호날두(왼쪽)와 루니.

자를 가린다. 박지성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 라이언 깁스, 마이클 캐릭, 폴 스콜스, 존 오셔, 루이스 나니, 오언 하그리브스, 대런 플래처, 루이 사아, 리오 퍼디난드, 파트리스 에브라, 네마냐 비디치, 에드윈 판데르 사르 등 주전급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박지성은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출장한 박지성은 인상적인 활약으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믿음을 얻었다. 반면 베테랑 깁스는 나이 탓에 몸놀림이 예전 같지 않고 포지션 경쟁자인 나니는 ‘박치기 퇴장’ 사건 여파가 남아 있다. 잉글랜드 언론도 박지성의 선발 출전에 무게를 실고 있다.

박지성이 1분이라도 활약한다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라운드를 밟는 영광을 누린다. 이란의 축구 영웅 알리 다에이는 1998-1999시즌 바이에른 뮌헨(독일)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뛰지는 못했다.

결승전 주심·부심, 첼시와 ‘안좋은 추억’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22일 오전 3시45분) 주심과 부심에 첼시와 ‘좋은 추억’을 가진 루보스 미첼(40), 로만 슬리스코(34) 심판이 배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맨유-첼시전을 맡게 된 미첼 심판은 2002년 한일월드컵 파라과이-남아프리카공화국전 주심으로 나서면서 슬로바키아 출신 1호 월드컵 본선 심판의 영광을 차지했던 주인공이다.

또 2003년 UEFA컵 결승전과 유로

2004 8강전 주심으로 활약, 국제축구연맹(IFFHS)이 선정한 ‘최고의 심판’ 2위(2006년)까지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첼 심판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폴란드어에 능해 선수들과 의사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미첼 심판의 화려한 경력 가운데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게 2004-2005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첼시-리버풀전이다.

전반 4분 리버풀의 루이스 가르시아의 슛을 첼시의 수비수 윌리엄 갈라스가 골대 앞에서 가까스로 거둬냈지만 부심은 골 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첼 주심은 이를 받아들여 골로 인정했다.

당시 첼시를 이끌었던 조제 무리뉴 감독은 오심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그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0-1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볼이 골 라인을 넘었다고 관망한 부심도 이번 맨유-첼시전 부심을 맡게 된 슬리스코 심판이어서 이번 맨유전을 준비하는 첼시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월드컵 요예션 대비 허정무호 25명 최종 확정



‘반지의 제왕’ 안정환(32·부산·사진)이 무려 21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허정무 축구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허정무 감독은 31일 치러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과 홈 경기(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KBS2 생중계)에 출전할 대표팀 소집 명단 25명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28일 낮 12시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소집돼 과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안정환의 복귀다.

지난 2006년 8월16일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전 이후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안정환은 올해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을 떠나 프로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부산 아이파크에 새 동지를 틀면서 부활을 준비했고, 마침내 허정무 감독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1년 9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

‘반지의 제왕’ 복귀

안정환 21개월만에 ‘태극마크’

성과 이영표(토트넘), 설기현(풀럼)을 비롯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과 올해 유럽축구연맹(UEFA)컵 챔피언에 오른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 김남일(벤티셀 고베) 등 7명의 해외파도 총출동한다.

또 올해 K-리그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조동건(상남)과 ‘파리아스 축구’의 활력소로 인정받고 있는 최효진(포항)이 생애 첫 대표팀 발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허 감독은 수비 라인에서 지난 3월 북한과 3차 예선 2차전 북한전에 뛰었던 선수들과 비교할 때 부상으로 빠진 광대휘(전남)를 뺀 것 외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미드필더 라인도 마찬가지로, 북한전에 서상민(경남)을 ‘깜짝 발탁’했다면 이번에는 최효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공격진에서는 오른쪽 복사뼈에 실금이 생긴 신영록(수원)을 제외하면서 조동건(상남)을 새로운 얼굴로 발탁했고, 박주영(서울)과 고기구(전남) 등 국내파 선수들을 재기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허정무 감독 부임 이후 한

번도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던 김진규(서울)는 이번에도 탈락했다.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때 경기력에서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허 감독은 “안정환은 소속팀의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기량 모두 괜찮다”며 “몸 상태가 좋고 큰 대회 경험이 많아 위기 상황에서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전 명단(25명)
▲GK = 김용대(광주) 김영광(울산) 정성룡(상남) ▲DF = 광희주(수원) 강민수(전북) 조용형(제주) 이정수(수원) 조병국(상남) 김동진(제니트) ▲MF = 조원희(수원) 오장은(울산) 김남일(벤티셀 고베) 이철용(서울)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김정우(상남) 이영표(토트넘) 김치우(전남) 오범석(사마라) 최효진(포항) ▲FW = 박주영(서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동건(상남) 안정환(부산) 고기구(전남) 설기현(풀럼)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갤럽 프로야구 8개 구단 인기 조사



KIA “인기는 성적 순이 아니예요”

롯데 로이스터 감독 영향 커... 선수는 이승엽 ‘짱’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롯데 자이언츠가 가장 인기있는 구단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4월24일부터 5월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5명을 대상으로 선호 프로야구 구단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가 전체의 15.7%의 지지를 받아 8개 구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0%의 응답률로 삼성 라이온즈(16.6%)와 KIA 타이거즈(10.2%)에

이어 3위에 머물렀던 롯데는 올해 제리 로이스터 감독을 앞세워 최고 인기 구단으로 발돋움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삼성(13.4%)과 KIA(11.2%)가 뒤를 이었고 SK 와이번스는 지난해 우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8%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그쳐 우리 히어로즈(1.3%) 다음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국내 프로야구를 1시간 이상 시청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4%가 ‘그렇다’고 대답해 2005년(29.6%)에 비해 국내 야구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프로야구의 경우 1시간 이상 시청자가 2005년 20.4%에서 올해 13.9%로 떨어지면서 해외파 부진에 따른 인기 하락을 실감케 했다.

한편 좋아하는 야구 선수로는 응답자의 49.5%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을 꼽았고,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32.6%)와 국내파 양준혁(삼성5.5%), 이대호(롯데5.0%)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양궁 장용호 ‘때늦은 우승’

대표 선발전서 고배... 대통령배 개인전은 1위

4회 연속 올림픽 출전 꿈이 좌절된 국가대표 장용호(32·예천군청·사진)가 제2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양궁대회 개인전 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장용호는 20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병준(23·울산남구청)을 113-104(120점 만점), 9점차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두 번이나 땀지만 올림픽보다 통과하기 힘들다는 국내 평가전 벽에 걸려 베이징행 티켓을 받지 못한 장용호였다.

최근 국가대표 8명 중 4명을 가리는 평가전에서 5위로 밀리는 바람에 어렵게 탈락



한 장용호는 평가전 후 첫 대회인 대통령배에서 무적의 실력을 과시했다.

8강에서 팀 선배 김성남(38·예천군청)을 113-103으로 제친 장용호는 4강에서 신성우(20·대구중구청)를 109-107로 누른 뒤 결승에서도 여유있게 승리했다. 고등부에선 김법민(17·대전체고), 대학부에선 정성원(20·경희대)이 각각 우승했다.

첨단고 채혜선 ‘銀’

5·18 기념 중·고 태권도

채혜선(광주 첨단고 1)이 제10회 광주 5·18민중항쟁기념 시장기 전국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채혜선은 20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편급 결승전에서 효성고 남정수에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0-1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손보애(광주체고 3년)는 여고부 밴텀급 준결승에서 김미애(사우고)에게 패해 동메달을 따냈다.

송성환(광주 문성고 3년)도 남고부 라이트급 준결승에서 인광자동차정보고 장성욱과 연장접전 끝에 0-1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단체부에서는 광주체고 여고부가 단체 3위에 올랐고, 전남체고는 여고부 감투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